

복락의 아이콘 郭子儀

— 『太平廣記』 『郭子儀』 이야기에서부터 조선의 ‘汾陽王行樂圖’,
『坤殿御筆』 및 『郭汾陽傳』까지*

최진아**

<目 次>

1. 서론: 복락의 아이콘 郭子儀
2. 선행연구검토
3. 중국 역사 인물 郭子儀와 중국고전서사 『太平廣記』 『郭子儀』
4. 우리나라의 郭子儀 이미지 수용
 - 1) 복을 부르는 그림 ‘汾陽王行樂圖’
 - 2) 왕후의 친정을 위한 교육서 『坤殿御筆』
 - 3) 영웅의 일대기 『郭汾陽傳』
5. 결론

1. 서론: 복락의 아이콘 郭子儀

전통시기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비록 젊은 날 갖은 고생을 하더라도 하늘의 비호 아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높은 벼슬, 풍족한 재산을 갖춘 삶, 게다가 슬하에 둔 수많은 자손의 번창함을 즐기고 오래도록 장수하는 삶이야말로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바라던 바였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그대로 구현해 낸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당나라 시기의 武將인 郭子儀(697~781)이다. 그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列傳」에 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259).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두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젊어서부터 무공에 뛰어났던 곽자의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 충성심 하나로 숱한 고난을 극복하며 安史의 난리에서 무공을 세워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또한 土蕃을 평정하여 변방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안정시킨 공로로 그는 당나라 황제로부터 汾陽王으로 봉해졌기에 郭汾陽이라고도 불리워졌다. 곽자의는 이처럼 ‘出將入相’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슬하에 여덟 명의 아들과 일곱 명의 딸 및 수많은 친손과 외손을 두었는데 당나라 황실과도 사돈을 맺었기에 곽자의의 외손 가운데 두 명의 황제가 나오기도 하였다. 만년의 곽자의는 분양왕의 칭호를 가지고 황실의 외척으로 화려한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렸다. 또한 슬하의 자손이 너무도 번창하였기에 자신에게 문안 온 자식들이 누가 누구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여서 그저 문안 인사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고¹⁾ 한다. 이같은 곽자의의 이야기는 唐末, 宋初까지의 중국 필기를 집대성한 『太平廣記』 권 제19에 수록된 「郭子儀」 조항에서도 나타난다. 젊은 시절 사막에서 종군하던 곽자의는 직녀성을 만나 축원을 받은 뒤, 직녀성의 축원대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당나라를 구한 명장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하늘의 뜻을 받은 충신인 곽자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로도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곽자의는 고려와 조선 중기까지는 나라에 충성하는 관료이자 용맹한 무장으로 나타난다. 그 후, 조선 중기 이후, 그의 이미지는 부귀와 장수라는 복락의 아이콘으로 기능하기에 이른다. 존경받는 사회적 성취, 건강하고 부유한 노년, 가문과 자손의 번창함으로 요약되는 그의 인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 왕실에서는 수많은 자손에 둘러싸인 곽자의의 생일잔치를 그린 그림인 ‘郭汾陽行樂圖’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병풍으로 제작하고 왕실의 결혼식에 배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병풍은 왕실을 넘어 민간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器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기 正祖의 왕후인 孝懿王后 김씨(1753~1821)는 곽자의의 행적을 기록한 중국 역사서인 『新唐書』의 「列傳」을 자신의 친정 조카를 시켜

1) 『新唐書』 「列傳」 第62 (郭子儀): “여덟 아들과 일곱 사위가 모두 조정에서 귀하게 현달하였다. 여러 손자가 수십 명인데 모두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문안을 오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八子七婿, 皆貴顯朝廷. 諸孫數十, 不能盡識, 至問安, 但頷之而已).”

한글로 번역시킨 뒤, 직접 한글 궁서체로 번역 내용을 옮긴 『坤殿御筆』이라는 책을 작성하였다. 이는 딸을 왕실에 시집보낸 효의왕후 자신의 친정이 광자의처럼 나라에 충성하는 외척이 되길 바라는 교육적 의도일 뿐 아니라 친정의 친척들이 온갖 복락을 광자의처럼 누리길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도 19세기 조선에서는 중국고전서사인 『태평광기』 「광자의」 이야기를 변용한 한글소설 『郭汾陽傳』이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광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영웅서사적 구조를 입힌 형태이다. 아직 때를 못 만난 영웅, 寶劍과 병서의 획득, 요괴의 퇴치와 강태공의 갑옷 취득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곽분양전」의 서사 구조는 중국고전서사인 『태평광기』 수록 「광자의」 이야기 보다 훨씬 세밀한 구조로 변화하였고 20세기 초에는 딱지본 소설로도 출판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유통되기에 이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당나라의 실존 인물이자 중국고전서사 『태평광기』에 수록된 인물인 광자의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향유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은 중국고전서사의 연구 영역과 우리나라 소설 연구의 영역을 비교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곽분양행락도’라는 회화의 영역 및 『坤殿御筆』에서 보여지 듯, 광자의라는 인물이 지닌 교육적 효과와도 연결되는 일이다. 따라서 학제적, 융합적인 연구의 기반 위에서 본 연구는 중국 인물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수용방식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중국고전서사 연구의 학문적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검토

중국의 실존 인물인 광자의와 중국고전서사인 『태평광기』 「광자의」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곽분양행락도’와 『곤전어필』, 한글소설 『곽분양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한 논저는 아직 국내외 중문학계에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의 국문학계에서는 『곽분양전』을 분석한 논문인 신선희의 「〈곽분양전〉 연구」²⁾와 박

혜순의 「〈곽분양전〉 연구: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³⁾가 대표적인데 이들 연구는 20세기 초에 출판된 딱지본 한글소설 『곽분양전』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것이나 그 내용 중에서 중국고전서사와의 차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최경환의 「곽분양 연구: 고전문화 속의 인물 읽기」⁴⁾에서는 소설 『곽분양전』의 異本에 대한 검토 및 조선 역사 기록과 고소설에 등장하는 곽분양 조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사 인물인 곽자의 및 중국고전서사에서의 곽자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보다는 국내학계에서 곽자의, 곽분양에 대해 연구한 성과는 미술사학 방면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 류기수의 「중국과 한국의 곽분양 도상 연구」⁵⁾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전해지는 곽분양 도상에 대해 그 종류와 의미를 연구하였고 김홍남의 「중국 〈郭子儀祝壽圖〉 연구: 연원과 발전」⁶⁾ 및 「한국 〈郭汾陽行樂圖〉 연구」라는 연작의 논문에서는 현전하는 곽자의 관련 도상을 중국과 한국의 것을 양식적, 도상적 차원에서 상세히 비교하여 자료를 제시하였음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중문학계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에는 문미진의 「곽자의 평생도병 연구」⁷⁾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곽자의 평생도병에 적힌 표제식 書題를 『舊唐書』, 『資治通鑑』 등의 실제 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한 성과이다.

이에 비해 중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곽자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방대하다. 역사 연구의 방면에서는 곽자의 및 안사의 난리를 연구한 성과⁸⁾가 중심을 이루고, 문학 연구의 방면에서는 山西省 지역의 희곡 晉劇인 '打金枝'에 대해서 고찰한 성과

2) 신선희, 「〈곽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장안전문대학, 제15집, 1995.

3) 박혜순, 「〈곽분양전〉 연구: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문과 석사논문, 2006.

4) 최경환, 「곽분양 연구: 고전문화 속의 인물 읽기」,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8집, 2008.

5) 류기수, 「중국과 한국의 곽분양 도상 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제47권, 2009.

6) 김홍남, 「중국 〈郭子儀祝壽圖〉 연구: 연원과 발전」, 『美術史論壇』, 한국미술연구소, 제33호, 2011 및 「한국 〈郭汾陽行樂圖〉 연구」, 『美術史論壇』, 한국미술연구소, 제34호, 2012.

7) 문미진, 「곽자의 평생도병 연구」,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60호, 2015.

8) 이와 관련한 중국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로는 곽자의라는 역사적 인물과 연관되어 출토된 유물 등을 중심으로 고증하는 다음의 논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荣新江, 李丹婕, 「郭子仪家族及其京城宅第——以新出墓志为中心」, 『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年 4期.

가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타금지’란 글자 그대로 ‘금지옥엽과도 같은 황제의 딸을 때리다’는 내용으로 궤자의의 아들인 궤애와 당나라 대종의 딸인 승평공주가 주인공이다. 郭曖는 당나라 代宗의 딸인 昇平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어느 날 두 부부가 다투다가 궤애가 ‘어찌 황제인 당신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 이러는 것이오? 내 아버지는 황제노릇 하기가 싫어서 안한 것이오’라고 화를 내다가 그만 공주를 때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인 대종에게 남편인 궤애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고 이에 대종은 오히려 공주에게 사위인 궤애의 말이 맞다고 하며 승평공주를 나무랐다.⁹⁾ 그리고 후에 모든 소식을 듣고 놀란 궤자의는 아들 궤애를 시켜 대종에게 백배사죄를 하러 가게 하였다고 한다. 궤애와 승평공주 부부는 각자 자신의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처음에는 자주 다투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금슬이 깊어졌다고 하는 ‘타금지’의 내용은 『자치통감』 및 필기 『因話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현재 ‘타금지’¹⁰⁾는 중국 핑궤에서뿐 아니라 京劇, 粵劇 등에서도 다양하게 수용되어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작품으로 공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는 ‘新醉打金枝’¹¹⁾라는 드라마로 이 이야기가 재편되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는데 이는 곧 궤자의와 그의 자손에 대한 일화는 여전히 현재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제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9) 『因話錄』: “궤애는 일찍이 승평공주와 금슬이 좋지 않아 공주를 다음과 같이 나무랐다. ‘황제인 당신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이오? 내 아버지는 황제노릇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오.’ 이에 공주는 화를 내고 울며 황제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궤애의 아버지가 정말로 황제 노릇하기 싫어서 안한 것임을 내가 모르는구나.’ (郭曖嘗與昇平公主琴瑟不調, 曖罵公主: ‘倚乃父天子耶? 我父嫌天子不作.’ 公主悲啼, 奔車奏之. 上曰: ‘汝不知, 他父實嫌天子不作.’)” 하지만 이 내용에 의하면 궤애는 공주를 때린 것이 아니라 공주와 단지 말다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타금지’는 아마도 극적인 구성을 위해 궤애가 공주를 때린 것으로 서술된 듯하다.

10) ‘타금지’와 관련된 중국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丁小俊, 「戏曲打金枝中郭子儀原型考述」, 『鄂州大学学报』, 2014年 5期, 許天柏, 「打金枝与郭子儀」, 『當代戲曲』, 1985年 8期.

11) 우리나라 여배우 채림이 昇平公主로 출연한 텔레비전 드라마로 핑궤 ‘打金枝’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3. 중국 역사 인물 郭子儀와 중국고전서사 『太平廣記』 『郭子儀』

중국 역사의 실존 인물인 郭子儀에 대해서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列傳」에 기재되어있으며 이들 기록에 따르면 郭子儀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郭子儀는 華州 鄭縣 사람으로 저명한 군사이자 정치가이다. 키가 7척 3촌이다. 그는 代宗으로부터 鐵券(즉 죄를 지어도 죽음을 면해주는 증서)를 받은 인물이다.
- (2) 무과 급제 후 左衛大將軍, 右兵馬使 등의 직책을 역임하고 玄宗 天寶 14년(755년)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李光弼과 함께 난을 토벌한다. 이후 肅宗이 즉위하자 부원수가 되어 장안과 낙양을 회복한다.
- (3) 魚朝恩에 의해 실각되었지만 河陽 땅에서 일어난 난리를 진압한 공로로 汾陽王에 책봉된다. 이후 僕固懷恩이 回紇, 吐蕃과 함께 長安을 치려 하자 郭子儀가 회홀을 회유하여 토번을 물리치고 당나라를 구한다.
- (4) 화주절도사의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하자 황제가 郭子儀를 위한 연회를 개최한다.
- (5) 郭子儀는 85세에 죽었고 그의 시호는 忠武이다. 郭子儀는 슬하에 아들 8명, 사위 7명을 두었는데 손자들이 너무 많아 문안을 오면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저 턱을 끄덕거릴 뿐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 郭元는 승평공주와 결혼하였고 그의 딸은 憲宗과의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다. 즉 郭子儀의 외손이 穆宗(820~824)이다.

위에서 보여지듯이 역사 속 실존 인물인 郭子儀는 당나라를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구한 구국의 名將이자 말년에는 자손의 번창함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郭子儀에 대해서 『太平廣記』의 「郭子儀」 조항에서는 좀 다른 내용으로 서술된다. 『太平廣記』 권 제19에 수록된 郭子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젊은 날 사막의 요새에서 종군하던 郭子儀는 하늘에서 내려 온 직녀성을 만나 자신에게 부귀와 장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직녀성은 郭子儀의 소원을 들어준다.

- (2) 직녀성의 말대로 괘자의는 공을 세워 부귀해졌고 명망도 높아졌다.
 (3) 한번은 군대에 전염병이 돌았으나 괘자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괘자의는 직녀성이 자신에게 해 준 예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고 그 후 괘자의는 직녀성의 예언대로 부귀와 장수를 누렸다. 그는 尙父 벼슬에까지 오른 뒤에 90세에 죽었다.

『태평광기』의 「괘자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서의 기록과 많은 차이가 난다. 직녀성과의 만남, 그리고 직녀성의 예언과 축수를 받았다는 괘자의의 이야기는 그 출전이 『神仙感遇傳』이듯이 도교, 신선적 요소로 가득하다. 이는 곧 괘자의라는 인물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환상영역으로 연계시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태평광기』에서의 언급은 이후 '郭子儀拜仙圖' 등의 그림에서 괘자의가 직녀성과 武曲星을 만나 무술과 병법에 관한 서적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모습으로도 구현되는데¹²⁾ 이 역시 실존 인물인 괘자의의 이야기에 점점 환상적 색채가 스토리텔링 되는 과정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태평광기』 권제176에 수록된 동일 제명의 조항인 「郭子儀」에서는 괘자의 이야기에 환상적인 요소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는 당나라 長安 親仁里에 있는 괘자의의 저택이 친인리 땅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며 그의 위세를 설명하였다. 또한 당나라 시기의 필기인 孫榮의 『北里誌』의 「楚兒」 조항에서도 괘자의의 손자인 郭鍛의 횡포에 대해 기록하였다.¹³⁾ 따라서 이러한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당나라 시기 괘자의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는 그의 혁혁한 전공, 출장입상의 성취, 장수와 부귀, 그리고 자손의 번창함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집중했다가 점차로 그의 이러한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선 세계에서부터 예정된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명, 청 시기 이후 민간의 그림인 '괘자의배선도', '郭汾陽平生圖屏' 등에서 보여지는 복락의 아

12) '괘자의배선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류기수, 「중국과 한국의 괘분양 도상 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제47권, 2009.

13) 이 조항에서 괘자의의 손자인 郭鍛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괘자의에게 부여되었던 철권을 남용하여 자기 멋대로 기녀인 초아를 매질하여 기녀의 원망을 샀다. 손계, 최명흠 지음 /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 2013.

이론으로서의 궤자의의 이미지 설정과도 연계되는 사항이다.

4. 우리나라의 郭子儀 이미지 수용

궤자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인식하게 된 최초의 시점은 아마도 통일신라시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당시 통일신라사람들은 궤자의를 당나라의 실존하는, 자신들과 동시대의 정치가이자 무장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그 예로 신라 말 최치원의 『桂苑筆耕』에서는 제갈상 상공이라는 사람의 공적을 궤자의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삼가 들건대, 相公께서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멀리 전투에 임하시느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서리와 이슬을 맞고 계시다고들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 다마는, 요즈음 건강이 어떠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가며 추위가 무섭 게 몰아치고 있습니다만, 명령이 휘하에 행해지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상처도 모두 잊게 할 것이요, 세상에 우뚝한 명망으로 장차 백성의 고통도 구제할 것이니, 모든 신령들이 복을 빌어 七萃의 공을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멀리로는 郤元帥의 드높은 명성을 드날리고 가까이로는 郭汾陽의 웅대한 전략을 계승하여, 요기를 쓸어버리고 생명을 구제해 주 시기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목을 빼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¹⁴⁾

또한 고려시기 이규보는 그의 시에서 나라의 동량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궤자의에 비유하였다.

조전은 한 나라를 붙잡았고,
조경은 당 나라를 도왔어라.
뿌리 크면 가지도 무성하고,

14) 최치원, 「諸葛爽相公」, 『桂苑筆耕』 제8권 別紙, 한국고전종합DB: “伏承親提師旅。遠赴戰征。跋履山川。蒙犯霜露。不審近日尊體何似。急景凋年。寒威肅物。令行麾下。盡忘戰瘡之傷。望峻襄中。將救瘡痍之患。必有百靈薦祉。七萃成功。遠揚郤元帥之高名。近繼郭汾陽之雄略。則銷氛祲。遍活蒸黎。有心之徒。引領而望。”

근원 깊으면 흐름 또한 길다네.
백성의 바람은 배진공에게 쏠리고,
국가의 기대임은 곽분양보다 더하네.¹⁵⁾

이후 고려 말, 『三國史記』 「列傳」 제4 〈張保臯〉 조항에서는 편찬자 김부식의 논평을 통해 ‘장보고가 곽분양 처럼 현명하다¹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곽자의는 충성스럽고 현명한 국가의 동량이라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나라에 충성스런 무장이자 관료인 곽자의의 이미지는 조선 시기에도 연속된다. 『朝鮮王朝實錄』에는 곽자의라는 이름이 40여 차례 등장하는데 주로 ‘문무를 겸비한 관리’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다.¹⁷⁾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기인 宣祖 시기에는 곽자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11건이나 되는데 이는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곽자의와도 같은 명장을 소환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과 연관된다. 또한 임진왜란 시기 활약한 이순신 장군의 시 「無題」에서도 ‘제갈량 중원 회복 어찌했었고, 말 달리던 곽자의 그림구나¹⁸⁾’라고 읊고 있는데 이 역시 곽자의라는 당나라 인물이 지닌 충절, 국난을 극복한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 복을 부르는 그림 ‘汾陽王行樂圖’

이와 같은 곽자의의 이미지는 임진왜란 이후를 분기점으로 하여 점점 국난극복의 무장이나 충신의 이미지에서 장수와 복락의 상징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중 곽자의가 말년의 복락을 누리는 모습은 이미 중국에서도 그림으로 유행했던 바¹⁹⁾ 조선시기에도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15) 李奎報, 「令公趙永仁에게 올리는 시. 并引」, 『동국이상국전집』 제7권 / 古律詩, 한국고전종합DB: “仲經扶聖漢, 趙懷相皇唐, 根大瓊枝盛, 源深玉派長……望歸襄晉國, 倚重郭汾陽.”

16) “此保臯與汾陽之賢等矣.”

17) 최경환, 「곽분양 연구: 고전문학 속의 인물 읽기」,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제 18집, 2008, 259쪽.

18) 1594년 9월 3일의 시: “恢復思諸葛, 長驅慕子儀.”

19) 중국에서의 곽자의 도상과 관련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곽자의 관련 그림을 길상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점 및 곽자의 관련 그림의 도입에 대해서는

인기 있는 주제의 그림으로 자리잡는다. 汾陽王으로 봉해진 곽자의의 생일축하연이 벌어지는 장면, 즉 '郭汾陽行樂圖'에서는 화려한 잔치와 번창한 자손에게 둘러싸인 곽자의의 말년이 묘사된다.

정확히 조선 어느 시기부터 '분양왕행락도'가 널리 유포되었는지에 확실치 않으나 『列聖御製』에 수록된 肅宗(1661~1720)의 「題郭汾陽行樂圖」를 통해 그 당시 조선 왕실에서 이 그림을 지니고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숙종은 이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題를 달기까지 하였다.

공업이 쌓이니 복록이 왔도다.
거문고와 피리꾼이 높은 건물 앞에 열 지어 있고,
아들과 사위들이 화려한 연석에서 모시고 있구나.
漢唐에 분양과 비교될 이 없으니,
임금도 의심치 않았고 대중도 시기하지 않았네.²⁰⁾

또한 숙종은 이 그림을 세자에게 주며 다음과 같이 세자의 복락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예부터 만복을 갖춘 이로는 곽자의를 제일로 여기느니,
아들, 사위, 손자들이 모두 앞에 섰구나.
이같은 그림이 우연히 그려진 것은 아니니,
곁에 두고 보면서 만복과 장수를 누리라.²¹⁾

이후 純祖(1790~1834) 시기인 1802년에는 순조의 가례를 위해 '곽분양행락도'가 세자의 다복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을 축원하는 의례용 병풍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²²⁾ 따라서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곽자의라는 당나라 인물은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0) '功业搜, 福祿來. 絲管高堂列, 子婿華筵倍. 漢唐無與汾陽比, 主不爲疑衆不猜.'

21) 『列聖御製』 「題郭子儀行樂圖賜世子」: "古來完福郭爲先, 子婿諸系盡在前. 圖與此障非偶爾, 仁看多社又多年" 위의 각주 20과 21의 우리말 해석은 김홍남의 「한국 〈郭汾陽行樂圖〉 연구」를 따랐다.

22) 『嘉禮都監儀軌』.

조선 임진왜란 시기까지는 구국의 영웅인 무관이자 덕행이 높은 충신의 이미지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다가 적어도 숙종 무렵에 이르러 괘자의의 이미지는 복락에 더욱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괘자의는 길상과 복락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기능을 계속 지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그림들은 조선 숙종 이후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괘분양행락도’이다. 두 그림 모두 괘자의의 생일잔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그림 속 인물들은 중국풍의 저택을 배경으로 중국풍의 의상을 입고 있다. <그림1>에서는 오른쪽에 <그림2>에서는 중간 부분에 춤을 추는 무희와 무희를 둘러싼 악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그림2>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괘자의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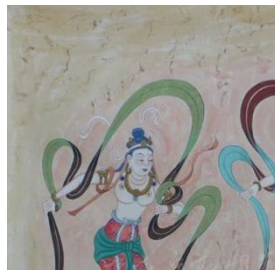
<그림1: 왕실에서 사용한 郭汾陽行樂圖>



<그림2: 왕실에서 사용한 郭汾陽行樂圖>

그런데 왕실에서 사용되던 이들 ‘곽분양행락도’에는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바로 곽자의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는 무희가 두 종류의 그림에서 모두 당나라 시기의 춤인 胡旋舞²³⁾ 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림3>의 돈황벽화 호선무와 <그림4> 확대 부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무희 옆의 악기들 역시 당나라식의 악기 편성이다. 즉 이 그림은 당나라 시기 번성한 가문의 모습을 재현하였고 이를 조선의 왕실에서 감상한 것이다. 이처럼 왕실의 의례용 그림에서 당나라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명나라 멸망 이후 조선은 漢唐 문화의 계승자가 새로 세워진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이라고 여기는 小中華 사상을 표방하였다. 즉 중화의 문화는 명나라 멸망으로 이미 단절되었기에 한당 중심의 중화 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할 주체는 다름 아닌 조선이라는 사고는 조선 왕실의 의례에서 당나라 배경의 그림을 무리없이 수용하는 바탕이 된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배경의 그림을 조선의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자명해진다. 이는 곽자의가 중국 당나라 인물이기에 당나라 배경의 그림이 당연하다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분양왕행락도’에서 보여지는 한당 문화 자체를 조선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3> 돈황 벽화의 호선무

23) 김홍남의 위의 논문에서는 무희가 추는 춤이 당나라 시기의 霓裳羽衣舞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여타 도상 자료를 통해 대조해 보겠다. 무희의 복장 및 몸에 두르고 있는 긴 리본 형태의 천, 그리고 복장 등을 통해 볼 때 이 춤은 당나라 시기의 호선무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이 춤이 호선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의 책에 수록된 화보의 호선무와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손계, 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출판, 2013, 199쪽 참조.



〈그림4: 괘분양행락도 4곡병 호선무 부분 확대, 그림3 호선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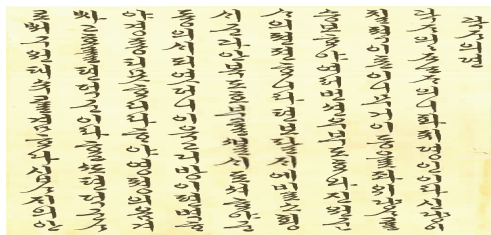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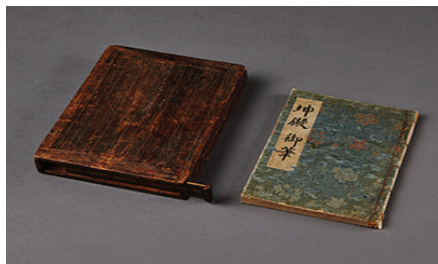
또한 ‘괘분양행락도’는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림의 구성요소들은 보다 한국적인 문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위의 호선무로 추정되는 당나라의 춤은 〈그림5〉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북춤으로 바뀐다. 그리고 괘자의 어린 자손들이 집안 이곳저곳에서 무리지어 노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괘자의라는 인물이 조선 문화 속으로 스스럼없이 소환되었다는 근거이다. 특히 ‘괘분양행락도’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 ‘百子圖’와 융합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손의 번창을 중시하는 조선 시기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괘분양행락도’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에서의 괘자의가 더 이상 먼 옛날, 중국 고대의 인물로 인식되지 않았고 조선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5: 민간의 郭汾陽行樂圖, 중간 부분의 북춤을 추는 무희와 노는 아이들〉

2) 왕후의 친정을 위한 교육서 「坤殿御筆」

1793년 정조의 왕비인 孝懿王后 김씨는 친정 조카 金宗善을 시켜 『新唐書』의 「郭子儀列傳」을 한글로 번역하게끔 하고 다시 이것을 자신이 직접 한글 궁체로 옮겨 적어 친정에 보관토록 한 것이 『坤殿御筆』이다. 효의왕후가 다른 인물의 열전이 아닌 淸자의 열전을 친필로 적은 데에는 이미 전술했듯이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낸 외척으로서 자신의 친정이 淸자의 집안을 본받아 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도 이외에도 친정이 淸자의 집안처럼 대대손손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기탁했기 때문이다.



〈그림6. 7: 곤전어필의 겉표지와 책상자(위) 및 淸자의전의 첫장(아래)〉

從兄 府使公이 내 글씨를 구하여 집안 대대로 전하는 보배로 삼고자 하시니 내가 허락한 지 수년이다. 甲寅년에 조카 宗善으로 하여금 萬石君傳과 郭子儀傳을 언문으로 번역시켜 (내가) 손수 베껴 보냄은.....우리 청풍 김씨가 대대로 어질고 후덕함을 이어가 질박하고 꾸밈이 적어 만석군의 가풍이 있고.....대대로 장수함을 누리고 강한 병사를 말아 궁궐을 숙직하여 지키므로 충성스럽고 부지런히 하고 조심스럽고 공손히 하여 (가문을) 보전하는 지혜를 발휘함이 淸분양의 完福이 있다.....후세 사람들이 내가

이리 쓴 뜻을 알아 마음이 충성되고 소박하여 도타운 것은 만석군을 배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사양하여 물리남은 괘분양과 같으며 (만석군과 괘분양) 두 집의 복록을 (우리 김씨) 한 가문에 모아 우리나라가 만세와 함께 태평을 누리 조상의 아름다운 덕행을 잘 따라 잠시라도 효성스럽고 공경하는 풍모가 쇠하지 아니하고 기울어진 우리 가문이 어찌 창대하게 되지 않으리오. 힘을 우리 가문에서 가히 불지라. 그런즉 이 한 책이 가히 우리 집안에 세세의 귀감이 되고 내 쓴 것을 한갓 잘 되기를 기도하였다 말할 뿐이 아니리라. 24)

위에서 보여지듯이 효의왕후 김씨는 괘자의전을 만석군전이라는 글과 함께 친정인 청풍 김씨 집안을 위해 직접 한글 궁체 글씨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책이 친정에 대대손손 전해져서 행동의 귀감이 되고 가문이 창대하게 되길 바랐다. 이러한 효의왕후의 의도는 또한 1793년 계축년 6월1일에 작성한 金基后의 跋文에서도 드러난다. 발문에 의하면 김기후와 김종선이 효의왕후에게 문안차 방문할 때, 그들은 효의왕후에게 집안에 자자손손 앞으로 전할 글을 남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坤殿御筆』을 받게끔 되니 이는 ‘忠孝勤愼’을 지켜 ‘忠勤之風’을 대대로 집안에 이어하게 하고 나아가 집안을 창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곤전어필』에서는 괘자의 이야기를 교육적 목적에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괘자의가 지닌 두 종류의 이미지, 忠 뿐만 아니라 복락, 가문의 번창함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지닌 괘자의를 더욱 닮게 하고 싶은 효의왕후의 염원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다.

3) 영웅의 일대기 「郭汾陽傳」

중국고전서사인 『태평광기』 「괘자의」 조항에서 비교적 소략했던 괘자의의 이야기는 조선에서 『郭汾陽傳』이라는 한글 소설로 변용되기에 이른다. 『괘분양전』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괘자의의 일대기를 서술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목판본과 활자본 두 종류가 현존하며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 25) 또한 이 작품은 20세

24) 현대 우리말의 번역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2014 97-98쪽.

기 초에 이른바 ‘딱지본 소설’로 출판되어 대중의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곽분양전』은 영웅의 일대기적인 형식을 지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곽자익은 郭璞의 7대손으로 곽박이 자신이 묻힐 길지를 정하며 곽자익의 탄생을 예언하였다.
- (2) 곽자익의 부친 곽훈은 中宗 황제가 나타나는 꿈을 꾸 뒤, 곽자익이 태어난다.
- (3) 부친 곽훈은 도적에게 살해당하고 모친도 돌아간다. 그 뒤 곽자익과 그의 동생은 갖은 고생을 하다가 동생과 헤어진다.
- (4) 곽자익은 그의 영웅적 품모를 알아본 리호철의 수하가 된다. 이후 어느 노인에게서 용천검과 병서 3권을 얻고 앞으로 운수가 열려서 30년 후에는 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 (5) 이후 곽자익은 리호철의 사위가 되고 헤어진 동생과도 재회한다. 승승장구하던 곽자익은 안록산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하나 이태백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또한 태항산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2천년 전에 강태공이 입던 갑옷과 금투구를 얻는다.
- (6)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곽자익은 난을 평정한다. 이후 연속된 전공을 세워 황제로부터 분양왕에 봉해진다.
- (7) 분양왕 곽자익은 천하에 버금가는 부귀와 백자천손의 화락을 즐기는 세상에서 제일 유복한 삶을 누린다.

『곽분양전』에서의 곽자익을 중국 고전 서사 『태평광기』에서의 곽자익의 모습과 비교하면 중국에서의 곽자익이 나라에 충성하는 무관에 가까운데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곽자익은 출생부터 비범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그의 출생 부분에서는 중국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郭璞이 등장하며 곽자익을 곽박의 후손으로 설정한다.²⁵⁾ 주지하다시피 곽박은 『山海經』 등의 신선, 도교 계열 서적에 주석을 단 대학자이다. 그런데 사실 곽박과 곽자익은 전혀 어떠한 혈연

25) 『郭汾陽傳』의 판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신선희, 「〈곽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장안전문대학, 제15집, 1995.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딱지본, 「(백자천손)곽분양실기」, 博文書館 刊行, 1923: “선조는 곽박이니 동진 사들이라.” 이하 『곽분양전』의 내용은 이 책을 따른다.

이나 가문의 연관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소설 『곽분양전』의 서두에서는 곽자의가 곽박의 후예임을 명시하며 곽자의의 탄생이 그의 7대조인 곽박이 정한 길한 묘자리 때문임을 서술한다. 또한 곽자의의 아버지가 중종 황제의 꿈을 꾸 뒤, 곽자의가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곽자의의 비범한 출생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곽박을 곽자의의 선조로 이 소설에서는 규정하였을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씨 가운데 菴山 곽씨는 곽박과 곽자의를 자신들의 족보에 수록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곽박이 등장하는 설화가 상당수 전래되는데 대부분 곽박이 시골의 점쟁이와의 내기에서 진다든가, 혹은 곽박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혼이 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즉 중국의 대학자인 곽박이란 인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의 일개 점쟁이나 며느리에게 내기에서 패하는 일반적이고도 조금은 웃긴 인물로 변해 버린 것이다.²⁷⁾ 그 과정에서 곽박은 중국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미 융화된 익숙한 이미지로 설정이 되었다. 따라서 『곽분양전』에서 곽자의를 곽박의 후예라고 강조한 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곽자의가 곽박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소설에서 전개될 곽자의의 신이한 행적을 그저 단순한 인간의 행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늘의 뜻이 예정되었기에 생겨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신선, 도교적 특성을 지닌 곽박의 후예가 곽자의이기에 곽자의 또한 곽박처럼 신선, 도교적 특성이 내재된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곽자의의 출신은 비범했지만 그 후 그는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영웅서사의 일반적인 구조인 '비범한 출생과 고난의 연속, 그리고 고난의 극복'이라는 유형과도 합치된다. 그러다가 곽자의는 이름 모를 노인을 만나 반년 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뒤, 용천검²⁸⁾과 병서를 전수받은 뒤부터 하늘의 뜻에 따라 그 능력을 발휘한다.

노옹 왈 내 이곳의 잇견지 삼백여년이라 비록 아는 일이 업스나 나는
속이지 못홀리니 그대는 괴이지 말나 호고 보검과 책 세권을 내여 노호며

27) 우리나라의 곽박 설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손지봉, 「한국 설화의 중국인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8.

28) 용천검은 중국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검으로 춘추시기 歐冶子가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일너 왈 그대의게 이거슬 전코져 하여 이곳의셔 기다런지 오래더니 오날
 날 만나시니 다행호거니와 삼십년 후면 운쉬 열니리니 이를 가지고 충성
 으로 나라홀 도와 일흠을 만뒤의 유전호라.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고전 서사에서와 같이 직녀성은 등장하지 않고 이름 모를 노인이 등장한다. 노인은 곽자의에게 보검과 책 세권을 주고 곽자의의 운세가 열릴 것임을 예언한다. 이는 영웅서사에서 영웅을 돕는 ‘조력자’의 등장이다. 또한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보검은 고려 시기 「삼국사기」에 기록된 김유신이 이야기에 서도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즉 김유신이 中嶽에서 수행하다가 어떤 승려로부터 별의 정기가 담긴 四寅劍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고, 조선 시기의 소설인 「劉忠烈傳」, 「謝客傳」, 「趙雄傳」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즉 곽자의 용천검 획득은 ‘영웅과 검의 획득’이라는 일반적인 영웅 서사의 형태를 따른다. 이후 곽자의는 이 보검으로 요괴를 물리친다. 그리고 강태공의 갑옷과 투구라는 새로운 강력한 신물을 또다시 획득하며 점점 자신의 능력과 위상을 키워 나간다.

이에 비해 중국의 그림인 ‘郭子儀平生圖屏’에서는 곽자의의 출생에서부터 말년까지가 묘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곽자의가 직녀성과 무곡성을 만나 무술과 용병술이 적힌 책을 전수받았다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²⁹⁾ 따라서 곽자의가 하늘의 뜻이 담긴 神物을 받는다는 부분은 아마도 중국에서는 민간에서 구전되던 이야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곽분양전』에서와 같이 구체화된 것이다.

1900년대 초에 이르면 곽자의 이야기는 『곽분양전』, 또는 『곽분양실기』라고도 불리우는 제목의 이른바 딱지본 소설로 출간된다. 컬러로 제작된 이 책의 표지는 곽자의와 그의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29) 문미진, 「곽자의 평생도병 연구」,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60호, 2015.



〈그림8: 딱지본 소설 『郭汾陽實記』의 겉표지〉

이 딱지본 소설의 내용은 기존의 『곽분양전』과 대동소이하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이 책의 겉면인 화려한 채색의 표지는 곽분양이 수많은 자손에게 둘러 싸여 생일잔치를 여는 장면이고 이 표지 그림의 하단에 호선무를 추는 무희가 있음을 볼 때 이 표지 그림은 조선 시기 왕실에서 사용되던 ‘곽분양행락도’와 유사하게 보인다. 또한 『곽분양실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곽분양행락도’를 그린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제근 제손을 거느리고 영패 무궁하고 금동 옥네 쌍쌍이 왕년하며.....
 괴즈현손의 거록호물 니로 다 괴록지 못 호나 분양왕의 빅즈천손으로 그
 유복호미 턴하의 업는 고로 흥낙호는 모양을 그려 후세의 전호니라.

즉, 백자천손의 분양왕의 복락은 천하에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으로 복락의 아이콘으로서의 곽자의 이미지가 확고부동하게 조선 시기 말까지 연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딱지본 소설의 출간 당시에는 중국 역사의 인물을 소환하여 우리나라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업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곽자의 이야기는 대중성 강한 딱지본 소설의 제재로도 매우 적합하였다. 위의 책이 발간된 博文書館에서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관우를 소재로 한 「관운장전」, 제갈량의 아내를 소재로 한 「黃夫人傳」 및 당나라 때의 실존인물인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薛仁貴傳」 등을 동일한 딱지본으로 출간³⁰⁾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미 곽자의

이야기는 한국적으로 專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복락을 상징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지속적이며 인기있는 아이콘임에 틀림이 없다.

5.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중국 역사 인물인 곽자의가 중국의 역사서 및 중국 고전 서사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곽자의의 이미지가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당나라를 구한 충신이자 무장인 곽자의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나라에 대한 충을 상징하는 인물로 표현되었으나 그 이후 곽자의가 지닌 말년의 부귀함과 자손의 번창함이 오히려 더욱 부각되면서 곽자의는 조선 중기 이후 복락의 아이콘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왕실에서는 곽자의의 생일잔치를 그린 그림인 '곽분양행락도'를 통해 복을 기원하였고 이 그림은 점차 민간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또한 조선의 왕후는 직접 곽자의의 열전을 한글 궁체로 쓴 『곤전어필』을 작성하여 왕후의 친정이 곽자의처럼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복락을 누리라는 교육적 의도와 기원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조선 후기에는 곽자의 이야기를 영웅의 일대기로 묘사한 한글 소설인 『곽분양전』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 소설은 중국의 고전 서사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비해 신선, 도교의 색채가 더 강화되었다. 나아가 이 소설은 겉면의 화려한 표지를 더한 딱지본 소설로도 출간되었는데 이는 곽자의 이야기가 우리 문화 속에서 대중성과 일반성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곽자의라는 역사 상의 인물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용되고 스토리텔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에 대한 충성에서 복락의 상징으로 변한 곽자의의 이미지는 중국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수용되었다. 동경국립박물관 소장품인 일본 에도 시기 寬政 4년(1792)의 '郭子儀圖'는 당나라 관복을 입은 노년의 곽자의가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을 동반하고 있는³¹⁾ 형태이다. 또한

30) 이들 작품은 당시 博文書館에서 출판된 책의 뒷부분에 붙은 출판서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자의를 소재로 한 회화인 '芭蕉の間'에서는 관복을 입은 곽자의가 파란 파초 이파리 사이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大正(1912~1926년) 무렵의 작가인 閑雨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노는 곽자의의 모습을 남겼는데 이 같은 일본의 곽자의 관련 회화는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곽자의 집안의 번창한 자손과 화려한 잔치는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곽자의와 어린 아이들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밖에도 1939년에 長谷川時雨에 의해 발표된 「郭子儀異變」³²⁾이라는 논저에서는 일본 곽자의 도상이 결혼 피로연 등에서 사용되어 복락을 상징한다고 서술하였을 통해 볼 때, 같은 동아시아 문화 권역인 일본에서도 곽자의는 복락의 아이콘임을 분명하다. 다만 왜 잔치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에 집중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진척된 연구를 통해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비교연구의 영역으로 기약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 (後晉) 劉昫 等 撰, 『舊唐書』.
 (宋) 歐陽脩, 『新唐書』.
 司馬光, 『資治通鑑』.
 『列聖御製』.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2014.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딱지본, 「(백자천손)곽분양실기」, 博文書館 刊行, 1923.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딱지본, 「(백자천손)곽분양실기」, 世昌書館 刊行, 1952.
 김부식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사기』, 서울, 솔, 1997.
 김장환 외 옮김, 『태평광기』, 서울, 학교방, 2000.
 손계, 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출판, 2013.
 민관동 著, 『중국 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정학성,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서울, 삼경문화사, 2000.

31) 1787년에 大乘寺 에 그려진 벽화.

32) 長谷川時雨, 「郭子儀異變」, 靑空文庫.

- 김인희, 「곤전어필 연구」,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학회지, 제30집, 2015.
- 김홍남, 「중국〈郭子儀祝壽圖〉 연구: 연원과 발전」, 『美術史論壇』, 한국미술연구소, 제33호, 2011.
- 김홍남, 「한국〈郭汾陽行樂圖〉 연구」, 『美術史論壇』, 한국미술연구소, 제34호, 2012.
- 류기수, 「중국과 한국의 괘분양 도상 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제47권, 2009.
- 문미진, 「괘자의 평생도병 연구」,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60호, 2015.
- 박혜순, 「〈괘분양전〉 연구: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문과 석사논문, 2006.
- 신선희, 「〈괘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장안전문대학, 제15집, 1995.
- 최경환, 「괘분양 연구: 고전문화 속의 인물 읽기」,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8집, 2008.
- 榮新江, 李丹婕, 「郭子儀家族及其京城宅第——以新出墓志爲中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年 4期.
- 劉明亮, 郭世科, 譚哈冰, 「郭氏文化“汾陽說”喜添新佐証」, 『山西日報』, 2010. 2. 8.
- 李國生, 「從唐詩看天寶戰爭及其歷史教訓」, 『中國民族報』, 2016. 4.
- 田小飛, 「蕃部与“安史之亂”的平定」, 西北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丁小俊, 「戲曲《打金枝》中郭子儀原型考述」, 『鄂州大學學報』, 2014年 5期.
- 程國賦 著, 『唐代小說嬗變研究』,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7.
- 趙成玉, 「郭子儀父子与《打金枝》」, 『山西政協報』, 2006. 3. 3.
- 朱倩, 「“打金枝”——皇帝的公主被打成賢妻」, 『中國信息報』, 2007. 11. 16.
- 許天柏, 「《打金枝》与郭子儀」, 『當代戲曲』, 1985年 8期.
- 胡靜, 「試論郭子儀對中唐北疆的經營」, 『內蒙古師範大學』, 2013年 4期.
- Nakamoto Dai, 「アトリビュートとしての芭蕉題詩 — 懷素圖, 寒山圖から郭子儀圖へ」, 『アゾア遊學』, 122, 142, 2009.5.

〈Abstract〉

Guoziyi, the Icon of Happiness and Comfort:
From the Story of Taiping-guangji Guoziyi to the Painting of 'Punyangwang
Haengnaktō' and Kwak Punyang-jon in Chosŏn Dynasty

Choi, Jin-A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opularit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adaptations of the Guo Ziyi 郭子儀 story from Tang China, focusing on three distinct cases in fiction, painting, and education. First, my discussion of the fictional narrative adaptation called *Kwak Punyang-jon* 郭汾陽傳. In *Taiping-guangji* (太平廣記) of China, Guoziyi appears as loyal general and in his latter years he lived in splendor. In this paper, I show how a Chinese story grew anew within the landscape of Chosŏn Korean fiction, in which the Korean Guo Ziyi—unlike his Chinese counterpart, who remains merely a loyal general—develops into a hero shaped by Confucian and Daoist elements. I then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Guo Ziyi in the widely circulated Chosŏn painting called “Punyangwang Haengnaktō” 汾陽王行樂圖, illuminating how Guo’s image as a symbol of happiness and comfort, popular in China, was also widely accepted among Koreans. Finally, by introducing the Chosŏn queen Hyoŏi 孝懿, who encouraged the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biography of Guo Ziyi from the New Book of Tang (新唐書郭子儀列傳) and used the story to educate her relatives, This is Konjeonepil (坤殿御筆). I demonstrate how the story and image of Guo Ziyi were perceived and integrated into the everyday lives of Koreans during the Chosŏn era. Cosequently, these examples directly show that character Guoziyi has deeply culturally transformed in Chosŏn. The three cases this study presents all reveal the depth of Koreans’ engagement with the story of Guo Ziyi and their attachment to the values of loyalty, happiness, and comfort with which he is associated.

Key words: Guoziyi (郭子儀), Punyangwang Haengnakto (汾陽王行樂圖),
Konjeonepil (坤殿御筆), Kwak Punyang-jon (郭汾陽傳), Confucianism,
Taoism

이 논문은 2018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
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